

도내 학생 100명 중 3명 “학폭 피해 경험”

전북교육청, 실태 전수조사 결과... 전년대비 0.5%p ↑
‘학교폭력 아님’ 결정 사안,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진행한 ‘2025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72.7%(인 10만1,776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피해·가해·목격 경험 문항 등으로 구성,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3.1%(3,183명)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진수를 확인한 결과, 동기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사안은 동기간대비 2024년 238건에서 2025년 3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 봉사 등 경미한 조치가 2023년 1,461건에서 2024년 1,924건으로 증가, 경미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아님’ 및 경미한 조치 사안의 증가로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생활교육 권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9월부터 초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중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응답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중대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시설공사

관계자 청렴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2층 강당에서 교육시설공사 관계자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공자와 감독자의 청렴 협약식을 통해 청렴의지를 고취시키고, 부패 척결을 위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과 (가칭)군산신역세권유치원 신축공사 등 10개 사업 시공사 대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렴 실천의 공동 책임을 다짐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충당제해 등 안전사고 방지 △부실시공 방지 △금품 및 향음 제공 등의 부정행위 근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공사 대표들은 학교와 소통 중재, 건설 행정 업무 경감, 충성한 공사기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건 216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11건에 103 명이 참여했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교육시설공사는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18억 규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소장 전제성,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25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동남아연구소는 2031년 8월까지 6년간 약 18억6,950여만원(간접비 포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서울과 부산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리 잡은 동남아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전북대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선정으로 동남아연구소는 동남아언어캠프를 비롯해 그간 운영해 온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지방 차원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동남아 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19년에도 ‘사람 중심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보건·복지 연구’로 선정, 지난 6년간 약 17억 원의 연구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이슈페이퍼와 논문, 정책연구, 총서를 발간했으며, 동남아 지역설명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학술·사회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번 신규 과제명은 ‘전환기 동남아시아 발전모델에 관한 비판적 지역연구’로, 불안정성이 커진 국제질서와 기후변화, 다중 위기 속에서 동남아시아가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기존 과제의 핵심 개념이던 ‘사람 중심성’에 ‘자연’을 추가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2025 유니브 스타트업 페스타(Univ. Start-up Festa)’가 16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대에서 개막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개막을 축하해주고 있다. 이 행사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청년 창업·문화 어우러지다

전북대 ‘유니브 스타트업 페스타’ 내일까지
14개 창업 지원기관·35개 창업기업 참여

‘2025 유니브 스타트업 페스타(Univ. Start-up Festa)’가 16일 개막했다. 이 행사는 17일까지 이틀간 전북대 구정문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창업 유관기관, 대학, 창업기업, 청년과 시민들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14개 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상담·홍보 부스, 35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품 판매 부스, 시민과 청년들을 위한 체험 부스 6개가 설치돼 현

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창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상담, 비즈니스 컨설팅, 전주시 청년 창업경진대회와 비즈쿨 창업경진대회, 창업기업 제품 전시·판매 및 프리마켓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전북대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와 충동아리연합회의 예술문화 ‘이룸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창업과 문화가 결합된 지역 대표 청년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청년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가능성 모색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경수 단장은 “유니브 스타트업 페스타는 단순한 창업 행사가 아니라 대학, 창업기관, 청년 창업자 간 협력을 촉진하는 교류의 장”이라며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늘봄학교 학생 안전, 학교 밖까지 확대한다

전북교육청, 경찰청·자경위와 범죄 예방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유정기)이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및 학교 주변 범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력에는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유괴 시도 및 유괴 의심 사건 발생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이 크게 높아지면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위해 늘봄지킴이, 학교안심알리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대응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교 인박을 아우르는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밖 늘봄기관, 거점늘봄센터 주변의 범죄 예방까지 지원하는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 강화가 핵심이다.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는 학교, 학교밖 늘봄 기관에서 ‘순찰 신문고’ 누리집으로 위험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늘봄 참여 학생들이 귀가 길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차

단하고, 학부모 걱정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신청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전북경찰청은 순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과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학교 안에 머무르던 안전 지원을 학생들의 생활권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학부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농업계고 학생 88명, 전국 영농학생축제 참가

축제는 18일까지 충북 청주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18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제54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5FFK충북대회)’에 도내 10개교에서 88명의 학생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를 넘는 힘,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업’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전국 농생명산업계열 고등학생 967명이 참여해 농업과 농업교육의 발전적인 모델을 배우고, 미래 농업인으로서의 기량을 뽐낸다.

이에 전북에서는 전주생명과학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남원용성고, 원



광보전고, 전북베이커리고, 전북인공지능고, 정음제일고, 한국경매추산고, 한국치즈과학고, 한국한방고 등 10개교 88명이 5개 분야 20개 종목에 참가한다.

출전종목은 △전공경진(식물자원, 동

물자원, 식품가공, 농업기계, 조경·산림) △실무능력경진(화훼장식, 제과·제빵, 조정설계, 농기계정비, 애견미용, 농식품조리) △과제이수(경영, 연구과제) △글로벌리더십대회 △축제분야(FFK골드벨, 예술제) 등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영농학생축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북 학생들이 전국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상연구 디지털 전환 기여

2025 중기 기술·경영혁신대전 유공자 시상식
김민걸 나눔스페이스 대표, ‘중기부장관상’

(주)나눔스페이스 김민걸(전북대 의과대학 교수) 대표가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주)나눔스페이스가 개발한 ‘정밀 의료 연구 맞춤형 역동적 동의 체계 플랫폼(METORY)’이 임상연구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혁신 기술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플랫폼은 기존 전자 동의서의 한계를 개선해 임상연구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동의 여부를 제어하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역동적 동의(Dynamic Consent)’ 기능을 제공한다. 역동적 동의란 연구 참여자가 연구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동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개념으로, 참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처리 시간이 평균 50% 이상 단축되고, 종이 문서 사용이 줄어 비용 절감 효과도 거뒀다. 또한 국내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과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규를 충실히 반영해 연구의 정합성과 신뢰성도 확보했다.

김민걸 대표는 “이번 수상은 (주)나눔스페이스가 추구해 온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인상재 기반 간접 측정기술 적용 가능성 검증

전주대 유민우 연구원, 기계기술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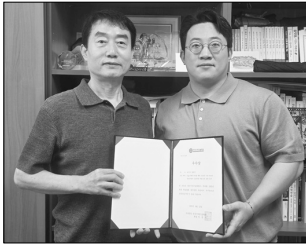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유민우(산업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이 한국기계기술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생산설계 부문 우수논문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산업공학과 정호연 교수의 지도 아래 정밀측정 시스템의 반복성·재현성(Gage R&R)을 통계적으로 분석, 산업현장에서 인상재 기반 간접 측정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검증했다.

아울러, 인상재 기반 측정법의 측정 오차와 변동 요인을 정량화하고, 기존 비접촉식 측정기와의 비교를 통해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밀 측정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유민우 연구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통계적 품질관리(SQC), 실험계획법(DOE), 정밀 측정(Precision



Measurement) 분야에서 더 심층적인 연구를 이어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측정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호연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과 실험 기반 연구를 통해 산업공학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지난 15일 칼리드 알 하마르(Khalid Al-Hamar) 주한 카타르 대사 초청 특강을 마련한 가운데, 알 하마르 대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대, 알 하마르 주한 카타르 대사 초청 특강

‘카타르-한국 관계: 비전과 교육’ 주제로 양국 협력 가능성 모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15일 칼리드 알 하마르(Khalid Al-Hamar) 주한 카타르 대사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본교 학생과 교직원, 외국인 유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에 따르면 이날 강연에서 알 하마르 대사는 ‘카타르-한국 관계: 비전과 교육’이라는 주제를 통해 카타르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카타르가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나날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협력, 청년 인재 교류, 학문적 협력의 미래를 짊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카타르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과 중동 지역의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며 호응을 보였다.

특강 이후 알 하마르 대사는 전북대가 최근 구축한 첨단 교육혁신 공간인 AI스페이스(AI Space)를 둘러봤다.

/장은성 기자